



攝
心
實
慈
愛
世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품)

東友會報

1987年（檀紀 4320年）3月 31日 第121號 [1]

반행인 鄭 在 哲
편집인 申 炫 益
인쇄인 崔 在 旭

東國大學校同窓會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 가 26
전화: 733-3993 (代)
733-3991, 3992, 3993

우편번호: 012328-31-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새 역사를創造하리라



제49차 定期理事會 열려

本会 제49차 定期理事会가 지난 21일 오후 2시 鄭在哲本회회장, 李智冠 모교총장, 吳綠園재단이사장, 趙明基(前모교총장) 고문, 文泰植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및 임원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 회사무국 특설회의장에서 열렸다. [관련기사 5면]

金東英 부회장을 임시의장으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鄭在哲 회장을 제14대 회장으로 재선임하고 제14대 임원진 구성을 회장에게 일임키로 하였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사무국 현판식을 겸하기도 해, 본회의를 마친후 현판식 및 자축연을 갖고 本会 발전을 축하하며, 앞으로 東國의 모든 힘을 會館建立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사진좌는 현판식 후 축하떡을 자르는 장면]

濁世의 연꽃으로 우리는 역사의 주인 아니었던가

기울어 가는 나라의 한 줄기 빛으로
순수한 민족의 정재(淨財)를 모아
「교육구국」의 배움터 이루었나니—

명진학교의 그날로부터 80년!
1906년 개교이래
‘지혜의 체득’
‘자비의 실천’
‘불퇴의 정진’을 지표삼아 우리 민족 근대사
의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역사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대학으로 사명을
다 해온 동국대학교!

여기, 가장 밝은 눈을 뜨고 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고자
했던 동국80년의 생생한 기록이 모아졌습니다.
이 살아있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본교 80주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 발자취를 재 확인하는 작업은
단순한 우리 대학만의 감격이나 축제가 아니라 모든 불교계,
나아가서는 민족 전체의 감격이며 기념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東大80年史의 어제와 오늘을 회고함에 있어 때로는
행동과 흥분으로, 때로는 눈물과 자애로, 때로는 이성과 양심으로 점철되어온
수많은 현장들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사진으로 본 東國大學校 80년」을
편집, 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간행사 中에서)



영옥의 생생한 모습—
「사진으로 본 동국대학교 80년」발간!

- 12질판, 146페이지, 고급양장본
- 구입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대신문사
(전화 267-8577, 267-8131-9 交 219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第49次定期理事會 盛了

지난 3月21日 사무국 현판식도 겸해

本會 49차 定期理事會에서 第14代 會長으로 鄭在哲 會 회장이 단장일자로 재선임되었으며 부회장단을 비롯한 임원은 郑 회장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李智冠モ교총장, 吳素麗副校학원이사장, 文泰植 수석부회장을 비롯, 1백50여 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月21일 본회 특설회의장에서 열린 이날理事會에서 郑在哲회장은 인사말을 통해『본회 사무국이전에 협조한 여러분들에게 고맙게 여겨며 앞으로母校발전과 본회 발전에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더욱 발전된 東國이 되도록하자』고 하며 동창회관 건립에 도 함께 동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서 李智冠모교총장은 축사를 통해『동문들의 헌신적 협조가 모교발전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전세계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조성, 부속병원의 활성화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金三龍(원광대학 총장 취임) 李永和(지안본부 총장 취임) 李鍾國(지안본부 제2차장 취임) 白永哲(관동대 학장취임) 金東夏(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장취임) 등 동문들 및 본회 사무국 이전 및 본회발전에 공헌이 큰 崔順植(經院1期· 대경상대교수) 등에 대한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이어 악간심의에서는 본회명칭을 東國大學總同窓會로 고치는 등 7개항에 대한 舉案이 제출 의결되었다.

<관련기사 5면>
한편 제49차 본회 정기이사회를 마친 후 거행된 사무국 이전 현판식에서는 郑在哲회장, 吳이사장, 趙正憲장 3명의 현판제 따스로 진행되었으며 현판식 후에는 축하객들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꽂침단등 축하연이 베풀어졌다.

農經科 동창회 장학기금
연말까지 5백만원 모금 예정
農經科 동창회(회장=梁在寧, 65경제· 삼영개발(주) 대표) 봄맞

東友漫評

鄭雲耕



『鍾路에 연 東國의 새터전』



▲鄭在哲이 金東夏 새마을운동 중앙본부회장에게 축하패를 수여하고 있다.

이 입시총회가 3월12일 오후 7시 졸회장을 비롯한 회원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郑在哲 회장 사무실에서 있었다.

이날 입시총회에서는 同會의 활성화를 위하여 3개월마다 입시총회를 갖기로 결정했으며 科

동창회 장학기금을 모으기로 결의, 쟁석에서 梁在寧(65회장)이 1백만원, 趙正憲(64회장)이 60만원, 姜仁會(66)동문이 20만원 등 2백만원이 모금되었으며 연말까지 5백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本會회장단會議

'87본회 운영방향등 논의

本會 會長團會議가 3月10일 오전11시 本會사무국 회의실에서 郑在哲 會本會會長을 비롯, 文泰植 수석부회장 등 會長團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宣晉圭(59佛敎) 本會常任副會長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會議에서는 3月9일에 있었던本會 86년도 결산감사시행 보고 및 87년도 本會운영방향등이 논의되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會長團은 다음과같다.

△會長: 郑在哲(52정치) 政務

長官

△副會長團: ▲文泰植(49전

亞洲產業(株) 會長) 首席副會長

▲金聖涉(53政治 대한도방(주) 會長) ▲洪淑子(55정지) 세여

성단체협의회 會長) ▲金東正(57법학·변호사) ▲宣晉圭(59불교 복지사회부회장) ▲金東英(60정치 國會議員) ▲徐吉漢(68불교 모교교사생활증) ▲尹鎭均(69원일한국부회장(주) 대표) ▲吉奎善(77경원 외교안양대교)

△監事 ▲李喆錫(62국문 한

국문인회 수석분과 위원장) ▲

南基一(72경영 삼연유지(주) 상무이사)

象院會 東洋畫展

作品品目도 실시중

교育교내대학원 동양화 전

공학도들의 모임인 象院會(회

장=申茲榮) 작품전이 지난 3

월10일 본회 특설전시장에서개

第16次定期總會

4月25日 母校에서

第16次定期總會가 오는 4월25일(土) 오후 3시 모교 동국관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번에 있을定期總會에서는 지난 3月21일 本會 事務局 특설회의장에서 있었던 49차 정기이사회에서 상정된 회장추대및 회칙개정안의안 갑사보고, 사업계획승인등 이사회에서 論議된 사항에 대해 최종인준을 받을 예정이다.

군종법 사단「定·總」

신임단장에 權五景 동문

權五景(71불교) 동문이 군종법사단 신임단장으로 선임되었다. 최근 조계종 충무원에서 있은 同87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진은 다음과 같다.

“同門カード 電算化作業”

同窓會員 카드

姓 名	한문:	한글:
出身大學	東國大學校	大學 科
職場名		牛卒業
電 話	職場:	職位:
自 宅住所		自宅:
大學院	관계	

(모교 대학원을 수료한 경우 경우 碩·博士과정 모두 記載할것)

碩 士 專攻科目: 修了年度:

博 士 專攻科目: 修了年度:

特殊且 大學院 修了年度:

本會 사무국 이전과 함께 컴퓨터를 도입, 보다빠른 통

문간의 정보교환과 회의 조직 강화의 일환으로 同門카드

加倍運動을 벌이고 있는 동

회에서는 이를위해 금년중에 全會員의 인적사항을 파

악, 전산화할 계획을 세우고

현재 그에대한 준비작업을 착

수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전산화

작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본회 사무국에서는

동문들의 전산화 인적사항

이 컴퓨터에 입력될수있도록

한시답도 빠짐없이 다음의 동

창회원카드양식에 의거 정확

한 회주소록을 작성하여 보내

줄것을 당부합니다. 7년 東

國의 카드는 접수가 되는

대로 곧바로 이를 전산화할

예정인데 우선 동우회보를 발

아고있는 동문은 한시답도

빠짐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접수해 줄것을 바라고있습니

政外科 동문의 밤

신임회장에 朴翊柱동문

母校 政治外

交系院 同門의

밤이 지난 3

월13일 오후 7

시 날짜를 흘려

에서 朴翊柱

(61政治·國科)

건설분과위원장·사진) 신임회장,

李智冠교총장, 閔丙天부총장,

金殷夏(52정치) 고문, 宣晉圭本

회상임부회장, 金北皓(62政治)

政外科동문회 수석부회장, 모교

各大學院長을 비롯 회원2백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날리

에 거행되었다.

朴翊柱 제 2 대 會長의 취임

식도 겸한 이날 행사에서는 王豹寧前회장 등 20여명에 대한

증도써가, 鄭在哲 본회회장, 김은하고문에 대한 추대해가, 故 이종린교수에 대한 추모회가 각각 수여되었으며 후배 2명에 대한 장학금지급 등이 있었다.

법오회 定期總會

신임회장에 金相益동문

법오회 定期

總會가 지난 3

월 10일 오후 7

시내 연희

동소재 연희풀

리자 中國苑에

서 洪斗杓(60

法學) 회장을 비롯해 太基華,

康泓敏(동문동 회원 25명이 참

석한 가운데 있다.

「임원개설」 「법오회 기금조성」

「86년상회·87년계회수립」 등이

모이된 이날 회장이 신임회

장에 金相益(57法學 大賣商社 대

표, 시장) 동문이 신임총무에 李

덕성동문이 피서되었다.

「경로효친 수기」 모집

경로사상 고취 위해

李敦熙(69상학·한국老人學

회회장) 동문은 「제 3회 한국노인

학회경로 효친수기」를 모집하

고 있다.

시민서가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해마다 수기를

모집하고있는 李敦熙(69상학)

을 모집하고있는 李敦熙(69상학)

을 모집하고있는 李敦熙(69상학)

을 모집하고있는 李敦熙(69상학)

을 모집하고있는 李敦熙(69상학)

제14대 鄭在哲회장 재선임

理事會詳報

本會의 제49차 정기이사회가 지난 21일 오후 2시 본회시무국 특설회장에서 鄭在哲회장, 李智基(56불교) 등문을 비롯, 李永植(58불교·지안본부장취임), 李鍾國(57영문·지안본부 제2차장 취임), 白承哲(62·번화·과동 대 학장 취임), 金東夏(79원·서마을운동 중앙본부회장취임) 등으로 교총장을, 周錦華(57영문·지안본부장취임), 趙明基(前교총장) 본회고문, 文泰植(수석부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및 1백50여명의 일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국민의례, 축하폐수여, 회장인사, 축사에 이어 인도의 등수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鄭在哲 회장을 제14대 회장으로 재선임하는 한편 회장단 및 각 시·군·구 회장을에게 일감키로하는 등 일원 개선과 86·87년도 예·결산안 및 회칙개정안 등을 심의하였다.

이자리에서 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본회 사무국 이전에 협조한 여러 동문들께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母校 발전과 본회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발전된 東國이 되도록 하자』고 말하고 동창회관 건립에 모든 東國의 힘을 집약시킬 것을 당부했다.

이어 李智基 모교총장을 축사를 통해 『동문들의 협심체육 조가 모교발전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전제, 『재학생들이면 학분위기 조성, 부속병원의 활

동화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축하폐수여 순서에서는 원광대학교 총장에서 취임한 金雲龍(56불교) 등문을 비롯, 李永植(58불교·지안본부장취임), 李鍾國(57영문·지안본부 제2차장 취임), 白承哲(62·번화·과동 대 학장 취임) 金東夏(79원·서마을운동 중앙본부회장취임)

동문등 국장을 빛낸 동문들에 대한 축하폐수여와 본회 사무국 이전에 공헌이 큰 崔禎植(경원 1기·대경홍산 대표) 등분에 대한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이어 본회에 들어가 韓東英(60정치·신민당前원내총무) 등문을 임시의장으로 진행되었는데



▲崔禎植(62·번화·과동 대 학장 취임) 金東夏(79원·서마을운동 중앙본부회장취임)에게 동창회관 건립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무국 현판식 및 자축연경해 예결산案·회칙개정案 등 심의

宣普圭主임부회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李喆鎭(62국문) 간사이 간사보고가 있었습니다. 86년도 결산안 및 예산안(별표참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본회명칭을 「東國大學校同窓會」로 고치는 등 회칙개정안(별표참조)을 진지하게 심의한끝에 참석이사 전원의 박수로 통과시키고 총회에 상정 키로했다.

본회의 순서를 마치고 鄭在哲회장은 유임인사에서 『현재 추진중인 여러 사업을 매듭지으려는 책임을 지원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동창회관 건립등 당면사업에 진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곧바로 참석한 모든 동문들의 박수속에 사무국 현판식



金三龍(동문)



李永植(동문)



李鍾國(동문)



白永哲(동문)



金東夏(동문)



崔禎植(동문)

이사회에서 통과된 회칙 개정안

현행 회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동국대학교 동창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 제3조 (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도, 시, 군 및 직장, 대학, 학과, 기, 전국조직망의 직장단위(100명이상) 등너희를 지부, 시, 군, 학교, 기, 각종 친목별 모임을 지회라 한다.
- 제13조 (고문 및 명예회장)
 1. 본회는 고문 약간령과 명예회장 1인을 두고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2. 고문은 총동창회장 출신으로하고 명예회장은 회장단 및 이사회의 지분에 응하여 모든 회의에 참석하며 발언권을 가진다.
- 제14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개정안

- 제1조 (명칭) 본회는 동국대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 제3조 (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경주캠퍼스가 있는 경주시에 이전하고 동창회장을 두고 각도단위, 대학단위, 전국조직망의 직장단위(100명이상) 등너희를 지부, 시, 군, 학교, 기, 각종 친목별 모임을 지회라 한다.
- 제13조 (고문 및 명예회장)
 1. 본회는 고문 약간령, 명예회장 1인 및 지도위원을 두고 회장단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고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2. 고문은 총동창회장 출신으로하고 명예회장은 회장단 및 이사회의 지분에 응하여 모든 회의에 참석하며 지도위원은 부회장 출신으로 한다.
- 단, 필요에 따라 동문중에서 고문과 지도위원 약간령을 회장단 회의에서 추대할 수 있다.

총회로 한정

- 정기총회는 2년마다 개최하며 모교교끼기념일을 전후하여 회정이 일주일간 지상공고로 이를 소집한다.

- 제15조 (총회의 결의사항) 본회의 결의사항은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의 개정
- 예산·결산의 승인
- 임원의 추대
- 사업계획 수립
- 기타

- 제21조 (사무국)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및 약간령의 직원을 둔다.

- 제22조 (사무국운영) 본회 사무국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무국장 및 직원은 회장단과 비상임으로 두거나 보할 수 있다.
-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정한다.

- 회무 규정

86·87년도 예·결산수지표

	86예산액	결산액	87예산액
이월금	0	16,529,658	135,322
등 칭 회 비	73,000,000	65,467,000	80,000,000
년 회 비	10,000,000	6,131,710	10,000,000
이 사 회 비	10,000,000	5,710,000	15,000,000
상 무 이 사 회 비	6,000,000	4,600,000	10,000,000
광 고 費	10,000,000	7,020,000	10,000,000
수 입 이 자	1,000,000	2,283,996	1,000,000
기 타(차 용 금)	0	18,600,000	864,678
	110,000,000	126,342,364	127,000,000

<지출>

	86예산액	결산액	87예산액
회 의 비	1,000,000	837,640	1,000,000
행 사 비	2,000,000	5,373,724	3,000,000
조 직 강 화 비	6,000,000	4,922,480	8,000,000
경 조 비	3,000,000	3,559,000	4,000,000
회 보 간 행 비	22,000,000	22,740,980	30,000,000
장 재 학 생 보 조 비	3,000,000	2,946,500	3,000,000
인 건 비	4,000,000	4,861,345	4,000,000
상 여 금	16,800,000	14,540,000	19,800,000
활 동 비	5,320,000	4,650,000	5,800,000
교 통 비	2,400,000	2,400,000	2,400,000
출 장 비	2,000,000	837,500	1,000,000
인 쇄 비	3,000,000	1,464,900	3,000,000
비 품 구 입 비	1,000,000	2,962,990	1,000,000
통 신 비	2,000,000	1,888,880	2,000,000
구 구 드	300,000	290,000	300,000
기 넘 품 비	500,000	500,000	500,000
소 모 품 비	1,000,000	680,330	1,000,000
지 금 수 수료	1,000,000	110,620	500,000
회 관 전 험 기 금	20,000,000	36,000,000	5,000,000
퇴 직 연 금 비	2,000,000	730,050	2,000,000
사 무 실 관 리 비	4,000,000	4,682,740	0
이 월 금	4,680,000	6,357,343	8,100,000
차 용 금	0	135,322	0
	110,000,000	126,342,364	127,000,000

▲결산(86. 3. 1~87. 2. 28) ▲예산(87. 3. 1~88. 2. 28)

을 갖고 축하와 함께 7만 東國인의 구심점이 될 동창회관 건립에 東國의 모든 힘을 집약시킬 것을 다짐했다. 이자리에서 周錦華(57영문·지안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東國의 瑞氣가 모이자는 듯해 부득 경하고 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80심성이 지난 지금 날전권 모습보다 아쉬운 점을 먼저 생각하는 자각이야말로 앞으로의 발전을 기약하는 자각』이라고 전제 『새로 선출된 鄭 회장을 기회로 東國의 힘을 하나로 모아 東國의 빛이 전세계에 펼쳐지게 하자』고 말해 참석한 동문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동문들의 박수속에 축하떡을 자르고 난 후 회회에 들어가 豈院會의 회관건립 기금 마련 동창회장을 관람하며 본회의 발전을 축하했다.

이날 이사회 및 사무국 현판식에는 張振建(50사학)·뉴욕지부 고문은 풍운을 비롯 金聖鑑(52국문·평주교대 학장)·관주지부 회장, 朴廣度(65불교)·경주동창회 회장을, 많은 해외 및 지방동문들이 참석하였으며, 이전 축하금으로 1천여만원이 접수되어 본회에서는 컴퓨터 설치비로 사용하기로 했다.

총회로 한정

- 정기총회는 2년마다 개최하며 모교교끼기념일을 전후하여 회정이 일주일간 지상공고로 이를 소집한다.

- 제15조 (총회의 결의사항) 본회의 결의사항은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의 개정
- 예산·결산의 승인
- 임원의 추대
- 사업계획 수립
- 기타

- 제21조 (사무국)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및 약간령의 직원을 둔다.

- 제22조 (사무국운영) 본회 사무국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무국장 및 직원은 회장단과 비상임으로 두거나 보할 수 있다.
-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정한다.

- 회무 규정

- 제2조 (사무국) ①본회 사무국은 모교 안에 두고 필요에 따라서 서울시내에 연락사무실을 둘 수 있다.

6·25 피난 시절의 東大

내가 軒門部 2년을 졸업한 것은 1950년 3월로서 6·25 동란이 일어나기 4개월전이었다.

그때 우리 전문부 졸업생들은 거의 모두가 모교에서 학



鄭台永
東國大學講師

부 3학년으로 편입하여 새로운 마을집으로 학구에 전념하고 있었다.

6·25동란. 그 악몽같은 민족상의 비극은 평화스럽던 학원의 「문」을 닫게 하였고, 우리들은 뜻하지 않게 도중하차의 비운을 겪게 되었다. 결국 나

의 學生活은 절름발이가 되고만 것이다.

나머지 學部 2년간의 전공과정을 타파와 황탕속에서 세대로 꿈에도 못한체 교문을 나서게 된 것이다. 북한공산도배들은 서물을 허루아침에 焦土化하고, 놈들의 무자비한 만행은 동족의식도 친구간의 우정도 완전히 무시되어 인간생존의 허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날이갈수록 놈들의 횡포는 가열되었다. 학살, 압박, 속죄의 선총이 온 장안을 휘몰아치고 가택수색과 가두검문으로 짚은 청년과 학생을 마구 죽여이며 유풍으로 끌어 내었다. 나의 당면问题是 무엇보다도 의용군을 모면하는데 있었다.

그 방법으로 구하고자 일단 고학으로 피신하는 것이었다. 서울에서 강원도 삼척까지는 무려 천리길. 동행자로는 고향 학우 세사람이었는데 그 남루한 웃자립은 기인을 불сты게 했다. 그리고 생활에 고장은 찾았으나 고향도 안전한 은신처가 되지 못해 부산으로 피난을갔다.

50년10월 부산에 도착한 나도 누님집에서 정착했지만 나에게는 일이 필요했다. 결국 내가 찾은일은 톨역이었는데 짚은 영어실력으로 톨역을 하려니 그 모습은 지금생각해도 웃을 만 나온다.

그 투련 나는 참으로 기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부산에 저지역 한대학들이 설립된다는 소

식이었는데 우리 東大가 피난지 부산에서 개교한 것은 1951년 봄, 시내 중심부인 新昌洞에 있는 大覺寺(당시 延南佛教教務院)에서였다. 法堂 지하실 50여평을 강의실로 꾸미고 첫 강의를 시작하였다. 우리 학생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야! 너 죽지 않고 살아 있었구나!」

개강 당시 학생수는 고작 40명에 불과하였고 교수님도 몇분 뿐이었다.

金東鶴(金東鶴) 李崇寧(李崇寧), 車相轍(車相轍) 교수님들께서 大覺寺의 추운 다만마방에서 기거하시면서 강의와 집무에 몰두하시던 모습은 지금도 잊을수가 없다. 그러한 한운데 開校식식을 들은 學生들은

모여들게 되었고 大覺寺 앞뜰에 假교사를 짓고 피난학교의 틀이 잡혀졌다. 나는 4학년으로 등교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학도호국단 부위원장에 선출되고 각부서의 부서장과 함께 학생자치활동분야를 맡게되었다.

우리 학생간부들은 모든일에 원만하신 金東鶴(金東鶴) 님의 지시에 따르고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시키며 사내 없이 일을 진행시켰다.

釜山 東亞극장에서 전국남여 고등학생들의 웅변대회를 개최하여 만장의 성황을 이루고, 짧은 학도의 정신부장을 고취한 것은 큰 성과였다.

연극부는 사르트르의 「무덤 없는 사자」를 부산과 대구 극장에서 공연하여 절찬속에 박수를 받았다. 우리는 민족의 수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자랑스러운年代를 자부하였다. 우리 스스로 화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고통도 감당하였고, 틈틈이 학교나 강의도 놓고 모든 행사에 자진참여하였다.

내가 東大를 졸업한 것은 1952년 3월, 부산 大覺寺 법당이었다. 東國 80年史를 통해서 학교 설립장을 떠나면서 거행한 단 한번의 졸업식이었다는 데 더욱 강회가 깊다. 그러기에 우리 동기생들은 東國의 영원한 고아 인지도 모르겠다.



▲ 6·25동란을 맞아 부산 大覺寺에 설치한 假校舎에서의 졸업식기념사진

제일銀서 명예퇴직

鄭 肇 駐

鄭 肇 駐

(58)

경제·제일

은행

동우회

회장

동문

은 최근에

임은행

합

정통

지점

장

에서(同)

인사부 조사역으로 자리를 옮겼다.

곧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 鄭 肇 駐은同行 일원부속실장을 거쳐 반포, 용산, 세운, 응암동지점장을 거쳐 합정동지점장으로 재직해오는동안에 금고, 신장등 많은 활약을 보여왔으며同行 동우회 발전에도 노력, 초대회장을 맡았으며 기금조성을 비롯 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본회이사다.

徐 駐 駐은 모교졸업후 아주산업(株)을 거쳐 同社로 자리를 뒀지만 영업부부장으로 재직해오며 많은 활약을 보여왔으며 그 업적을 인정받아 이번에 이사로 榮進한 것.

금성사 부사장으로

孫 基 洛 駐

孫 基 洛

(63경제·

본회이사)

동문은 최근에

임은행

합

정통

지점

장

에서(同)

서울에서 관리본부장을 거쳐 株式회사 금성사 부사장으로 영진 했다.

孫 基 洛은 공인회계사로 株式회사 관리본부장을 거쳐 株式회사 경영이사, 同財經社부이사, 本회이사, 金성사 선무부이사로 역임했으며 株式회사 감사로 겸임해온다. 金성사는 同社 입사이래 출판 영업파트에서만 활약해온

대로 영진하였다.

企銀 西여의도 지점장

崔 延 吉 駐

崔 延 吉

(64경제·

증권부지

동문은

최근 증권부

부지점장

에서(同)

서울에서 관리본부장을 거쳐 株式회사 西여의도 지점장으로

으로 임명되었으며 서예의도 지점장으로 옮겨온다. 연세大 동우회에서 관리본부와 협력하여 일선지점장을 거쳐 본점지사여, 신촌지점 차장등을 역임하고 대전 가정동 예금취급소장으로 재임해온다. 최근 서예의도지점 개업과 함께 지점장으로 부임하였다.

유한양행 경남지점장

金 正 浩 駐

金 正 浩

(71경제)

동문은 최

근 경상기

업(株) 영

업부장

에서(同)

서울 영업부

당 이사로

임명되었다.

榮進하였다.

활약해온 金東鶴은 경북지점과장을 거쳐 포항영업소 소장으로 재직해온다. 이번에 영진한 것.

동아생명 理事로

楊 秀 成 駐

楊 秀 成

(65경제)

동문은 지난

2월 28

일았을 동

아생명

보험(株) 정

기총회에

서 교육담당이사로 職進하였다.

楊 秀 成은 同社 입사이래 출

판 영업파트에서만 활약해온

대로 영진하였다.

楊 秀 成

(66법학)=상업은행

신기풀지점에서 세운지점

차장으로

▲ 李忠敘(67경제)=민정당

성지부장으로

▲ 文範植(67무역)=한국산업

은행 국제영업부에서 기업분석

부로

榮進轉補

▲ 李吉燮(61경제)=동방생명

대구총구에서 서울동부총구장으

로

▲ 金鍾玉(66법학)=상업은행

신기풀지점에서 세운지점

차장으로

▲ 李忠敘(67경제)=민정당

성지부장으로

▲ 文範植(67무역)=영동등포

지점 차장에서 막도지점 차장으로

▲ 최윤설(72상화)=성동동지점

차장에서 양동지점 차장으로

▲ 文俊明(68농학)=용산지점

차장에서 영일동지점 차장으로

▲ 金穆(72상화)=용산지점

차장에서 본인 회장으로

▲ 金正浩(69영문)=회현동지

점 차장에서 서예동지점 차장으로

▲ 趙仁熙(70행정)=종로 5가

지점 차장에서 풍래동지점

차장으로

▲ 金鍾玉(70경제)=영등포동

지점 차장에서 막도지점 차장으로

▲ 최윤설(72상화)=성동동지점

차장에서 양동지점 차장으로

▲ 金正浩(73경제)=용산지점

차장에서 영일동지점 차장으로

▲ 金穆(73상화)=용산지점

차장에서 막도지점 차장으로

▲ 金正浩(74영문)=용산지점

차장으로

▲ 金鍾玉(74영문)=용산지점

차장으로

▲ 金正浩(74영문)=용산지점

차장으로

▲ 金鍾玉(74영문)=용산지점

차장으로

▲ 金正浩(74영문)=용산지점

차장으로



東女會

앞서 가는

활기찬 出發 계속 精進해야 할 때

"여자이니까 하는 관념타파가 금선무"

시작은 東國이 배출한 여성 학생 수가 1백여명 정도로 더욱 독립한 우의를 기쳤다고 밝히며 「비록 창립총회에 나온 女學生의 숫자가 18명에 불과하지만 친목도로 뛰어나아니라 우수한 후배를 위한 장학 기금 조성을 취지로 전체 의견을 종합했지요. 그리고 당시 鄭石 충남님의 배려로 이발소를 일대운영(당시 본으로 5천원), 男子同窓會(男總同窓會)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지요』라고 東女會의 출장을 예고하고 있다.

東女會一。

이름 그대로 東國이 배출한 女學生들의 모임이다. 7만 東國人 중에 女子同門은 줄잡아 8천명 정도다.

東女會는 정확한 회원 숫자가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반대해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중요시되는 요즘 安화장을 중심으로 임원들이 한마음, 힘으로 東國女性의 구심점으로 뛰고 있는 東女會를 찾아 보았다.

◇出發은 오히려 東女會가....

『활동의 시작은 정확히 62년부터라고 보아야겠지요. 그러나 발족은 61년 기울로 기억됩니다.

당시 동국여학생들이 몇 명 안 돼 계를 하자는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尹乙順, 鄭廷順, 白恩順 등이 중심이 되어 市내 和昌당방에서 출업번 입회 환영회가 열린 것이 창립총회가 된 것입니다. (이때 시작한 東女會 임회식은 지금까지 하나의 전통으로 계승되고 있다)라고 창립 당시를 말하는 安화장은 당



▲ 새로운 東女會를 위해 뛰고 있는 회장단

같은 현제와 같이 총동창회의 부속이 아니라 男子동창회와는 별도의 모임으로 시작되었다고 평한다.

이렇게 시작된 東女會가 본래의 취지대로 東女會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1964년...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3~4년간 10여명에 지급해온 이 장학사업은 당시 東女會뿐만 아니라 母校 담국, 동창사회에서도 고무적인 뉴스가 되었다.

『초창기의 東女會는 대단했

지요. 모두들 정신없이 뛰었으니까요. 그러나 나도 개인적 교육사업(의정부 복지증고) 관계로 소금 소원했고, 회의 자금사정으로 계속추진을 못했지요. 또 다른 원인은 여자이기에 조직 확대가 용이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까요.』라고 밝히는 安화장은 당시의 東女會가 계속 장학금지급 및 사업 확대발전을 못한 것을 끗내 아쉬워한다.

『시작을 활기차게 했으나 계속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죠

는다.

◇基金 조성에 박차

『東女會가 더욱 발전하려면 회원의 조직 관리도 중요하지만 자원마련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회원들에게서의 회비거점을 몇몇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장학사업과 기타부대사업을 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 않

겠어요』라고 말하는 安화장은 기금 마련을 위해, 그리고 조직의 재정비를 위해 임원진이 뚫打通쳐 활동할 때라고 강조한다.

현재 東女會는 安화장을 중심으로 조직정비에 전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 여름방학에는 대구보 총회를 열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 임원진도 대체 보강하고 있는데 고문에 尹乙順, 동문명예회장에 洪淑子, 金貞愛, 동분후원회 회장에 朴桂山, 동분부회장에 李永子, 朴賢淑, 印丁一, 鄭順伊, 洪成淑동문 출부에 金太田(63·英文) 등으로 회의 일원을 구성하고 있다.



安 蔡 蘭 會長



金 太 田 朝 務

公告

4월 25일 母校에서 만납시다 —————

第16次 本會定期總會 개최

7만 東國人이나 하나님이 되어 용비동국을 설계하는結束파선태의자리, 本會 第16次定期總會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同門여러분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이번 제16차 정기총회는 지난 3월 21일 49차 정기이사회에서 상정된 14대 임원개선 및 회칙개정, 86년 감사보고 및 87년 사업계획승인을 긍지로 치른 안건을 결정하는總會인 만큼 모든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東國의 미래를 기약하는 총회가 되기 위해 동문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一 葉 —

1. 日 時 : 1987年4月25日(土)午後3時
2. 場 所 : 母校 東國館

3. 主要案件 :

- ① 14대 임원개선
 - ② 회칙개정
 - ③ 86년 감사보고 및 87년 사업계획승인
 - ④ 기타 사항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事務局으로 문의바랍니다.
(733-3993, 3991-3)

1987年 3月 日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會長 鄭在哲



李永子副會長

朴賢淑副會長

印丁一副會長

洪成淑副會長

會費 ·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信斗 一山 金屬 商業 社
金斗 一山 金屬 商業 社

信一金鳳 : 서울·中区 乙支路3街251-3
電話 266-6662, 265-3258
275-5615
斗山金鳳 : 서울·中区 山林洞 152-2
電話 265-1516
信一工芸 : 서울·中区 乙支路3街251-3
電話 265-1317

실내장식용금속판매



대표이사 金鍾葉
(84 경영)

체신부 通信工事면허업체

世字電子通信公社

TEL: 273-4048 (代)

- 각종 通信設備 유지 보수
- 각종 通信機器 제작 및 설치
- 전자식 자동교환기 및 키-폰
- FAX, TELEX, 인터폰, MDF 설치
- 컴퓨터 및 SOFTWARE 용역

대표 趙椿煥 (74 경영)

중구 을지로 4가 315-1 무광BD 510호

訊韓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成光大리점

업종 : 자동차·화재·특종·장기·상해보험등
각종 보험업무취급

대표 康鎮元 (72 경영)
TEL : 736-5362, 5361

서울 중구 삼각동 115 경기 B/D 1302호

世進家具工芸店

TEL : 736-7887, 2311

- | | |
|----------|---------------------------------|
| ■ 가정용 가구 | 代表 金文煥 (64 경외) |
| ■ 사무용 가구 |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서대문·독립문 중간) |
| ■ 혼례용 가구 | |



<30>

夫婦同文

◇林德圭

<60 법학·디플로머시誌 회장>

◇李靜順

<30 영문·디플로머시誌 사장겸 발행인>

『토요일 오후였어요. 점심을 갖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넘어지길래 일으켜 주며 처음 음을 삽아봤지요.

저를 손을 삼아보면 연애시절을 회상하며 너털웃음을 터트리는 林德圭(60법학·디플로머시誌 회장)과 동문과 새삼 수줍은 듯 미소를 짓는 李靜順(60결문·디플로머시誌 사장겸 발행인) 등이다.

당시에도 솔로한장 잠자보기와 무작 힘든 때라 자연스럽게 손을 잡을 기회를 만드느라 난산임 있었다는 그림에 李동문이 힐링을 신고도 도무지 넘어질 기색이 보이지 않자, 연구글에 날을 잡아(?) 좀 더 가파른 점을 뒷산엔 갖다가 드리어 성공했다고 한다.

도서관서 처음만나...

60년 2월 모교영문과를 졸업하고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던 李동문과 60년 8월 모교 법학과를 졸업하기까지 학생으로 도서관을 매일같이 드니들던 林동문은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질수 있었단다.

총남 논신이 고령인 林동문은 小農인 집에 위치하지 않고 학업을 마치기 위해 신문배달과 가정교사로 턱치는대로 일거리를 찾던 때라. 李동문과는 데이트할 시간을 내기엔 부족했을 정도였다. 그래서 매일같이 일을 마치고난 후 10시쯤에 만나 통금시간이 입박해서야 집에까지 비례다주곤 했으며, 당시 50원하면 크레카 1봉만가

“영정하고 결혼도 불사”, 에 결혼승락

디플로머시誌 함께 운영하는 理想的 반려자

지금도 그시간이 그렇게 행복하고 한편 아쉬울 수가 없었다고 한다.

당시 林동문은 장래 평생을 해로할 아내로는 정상적가정에서 성장할 것, 자신의 회복한 분위기를 위해 피아노를 칠 수 있을 것, 자신의 내조를 위해 영문과를 졸업했을 것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해오던데 李동문은 사귀기보니 그 조건에 딱 맞더라.

그때 정률에서 손목을 잡는 순간 李동문은 평생의 반려자로 심기로 결심하고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선뜻 응하지 않는 李동문에게 “싫어도 할수없다. 당신이 죽는다면 영정하고

선되기도 했다.

『세계 국제법협회』는 1944년 역사를 가진 세계최고 권위의 학술단체로 하바드, 옥스퍼드, 모스크바 대학등 전 세계 법학계 5천여 명학자를 모임으로 국내 최초이며 아시아에서는 세번째로 林동문이 회장임을 알아 국유선양과 함께 국제법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디플로...】李동문이 바톤

또한 林동문의 국회진출과 함께 李동문이 사장겸 발행인으로 바톤을 이어받은 디플로머시誌는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 (공산권 포함)에 배포되



▲디플로머시誌사무실에서의 林동문부부

라도 결혼하겠다고 선포(?) 하였다고 한다.

셋팅 진진... 内助에 감사

그렇게하여 62년도에 결혼을 하고 단란 월세방을 전전해온 그동안 한미디 불평없이 3남 1녀의 자녀들을 키우며, 결혼후 모교에서 석사 박사과정을 마치고 오늘의 林동문이 되기까지 내조를 아끼지 않은 李동문에게 말할수없는 고마움을 느끼며 두손을 꼭 잡는다. 75년 디플로머시誌를 창간한 후 81년 11대 의원으로 국회에 진출하기까지 밤낮으로 민간외교에 많은 활약을 해온 林동문은 지난해에는 2년임기의 「세계 국제법 협회」 회장에 당

고있는 민간 외교자로 월간 영문판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매월 표지는 국가원수의 사진으로 장식하고 있는데 각국에서 서로 자기나라 특집을 실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11대 국회의원(논산·공주)으로 현재 국립당 당부위원장인 인권옹호 위원장을 맡고 있는 林동문은 국회내에서 「북한답당의 의원」으로 불릴만큼 평화통일과 민족의 동질성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수아리국왕의 초청으로 「카이로」에 갔을때에는 다음날 바로 귀국해야하는 바쁜 일정 때문에 나일강 유적을 돌아볼 기회가 없자, 李동문 혼자서

물론 택시를 타고 1시간만에 나일강 유적을 수박걸하기 식

새주소를 알려주세요

*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주소입니다. 이지도 報會를 받지 못하시는 동문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곧 보내 드리겠습니다.

214동 704호

▲金圭鎮(67사회) = 쟁구 회현동 미성 APT 6동 201호

▲鄭台水(49사회) = 서울 성동구 팔장동 웨커힐 APT 22동 701호

▲黃甲孫(52정치) = 전주시 전주대학교 지역개발 대학원원장

▲高文錫(52경제) = 진양군 일반성면 장촌리 반성종합고교장

▲任千準(54국문) = 대전시 동구 중동 26-15 동국서립 대표

▲朴壽植(57외학) =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하정봉리 포천 실업고등학교장

▲장창복(57법학) = 강화 김포 경찰서장

▲李淇和(59정체)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 60번지 대승빌딩 15층(63빌딩)

▲許林(62정치) = 대안한국김포국제운수 1부장(지점장대리)·성동구 응봉동 100 대림 APT 6동 1202호

▲徐丙壽(62경제) = 성동구 성수동 2가 299-26 정창기업(주)

▲이봉섭(63영문) = 태평양제선 상무이사 마포구 하수동 6-18

▲陳點德(63정치) = 김포시 관수사과 강남구 반포 1동 미도 APT 302-502

▲李奎宰(63정치) = 강남구 잠실본동 246-15 강동구 청세부 1과 4계장

▲金應萬(77경제) = 노동부 청계 2동 889-2 신우주택 16-301

▲한원석(78경영) = 강동구 송파동 8-4

▲李治洙(79정경) = 종로구 홍지동 7 상당여대 행정학과 교수

▲蔡盛皓(80환경) = 종구 서소문동 75-95 유진건설(주) 해외인력부

▲南重旭(80무역) = 강서구 공항동 국제공용 청사내 소총용품집

▲金澤猷(83환경) = 종구 신당동 309-15 한일은행 약수동지점

▲이종열(83회계) = 인천시 북구 부평동 국민은행 부평지점



現代自動車(株)

현대인이 선택하는 정상의 승용차!

“그렌저” 판매개시 2,000CC 2,400CC 3,000CC

판매과장 : 柳在善

(70경기·ROTC 8기)

TEL 274-3103~7
야간 914-6584

자동차 김종점검 및
검사대행
자동차보험 계약공장
견의자(대소형) 주아동사
자동차보험 엄마취급
오너드라이버 특별서비스

1급 자동차 정비사업체 * 전화상담 환영 *

○ 오성공업사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71-46 (정비점지)

635-3651~3

635-2828



에 대한 모든 것

(783) 2707 · (782) 9721-2

- * 시내연수 - 3시간내 자신감부여
- * 렌트카 - 각종 차량 구비
- * 대리운전 - 24시간 대기
- * 노동·정비·기기설치

자동차 서비스라인 회원모집

(株) 南陽企劃

代表 李鐘蘭

(경원 여학생회장·총무)



대우자동차(株)

'87 신형 정통 고급승용차 탄생

로얄시리즈(듀크·프린스·살롱·수퍼살롱)
월드카 르망시리즈(GSE·GTE·레이서)TEL. 540-4740(직)
(야간) 487-7539 판매과장 : 崔鉉石(74연영)

강남 7 헌릉동 88-7 (고려 B/D 1층)

■ 西独 보쉬 純正品

연료절감

엔진 출력 증가 / 수명 연장

■ 적용 차량

현대·대우 全 차종

BOSCH SUPER
Co-Electrode
Thermo Plastic수입원 : 洋陽商事 (대표 :沈載錄·65경영)
TEL. (02) 213-1392/3107 아파트 서비스 244-0997

제19대 총학생회 출범

지난 12·13일 신입생 환영회도 가져

母校 제19대 총학생회 출범식이 지난 9월 학생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성당 앞에서 있었

이날 출범식은 18대 총학생회 회장(이준호 87산공) 권한대행이 입인사, 총학생회기 기약, 19대 총학생회장 취임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총여학생회 출범식도지 난 11일 3백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복성당 앞에서 있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학내의 부지문제와 여성문화 해결을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어 「우리가 우리가 찾았으니」라는 풍자마당극도 공연되었다.

한편, 총학생회는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전시실 신설 환영회」를 중강당 및 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첫날인 12일에는 李金東(연예) 교수를 초빙, 「비획인의 시명의식」이라는 주제에 대해 강연회가 있었으며, 둘째날에는 徐開吉(한국학) 교수를 비롯한 학교·동창회관계자·총학생회간부 및 신입생 8백여명이 참석, 총 2부로 나뉘어 대학생활에 관한 소개 및 환영행사를 가졌다.

病院건립 심의委

각종 현안문제 논의

「의대 및 부속병원 건립 심의 위원회」가 지난달 20일로 구성되었다.

병원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 재원 확보 등 현실적 사항을 심의할 이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와 같다.

◇ 위원장=吳仁甲이사장 ▲

李智冠총장

◇ 副主任=▲閔丙天부총장 ▲洪起三기획조정실장 ▲朴先榮교수

처장 ▲徐開吉학생처장 ▲宋錫球총무처장 ▲趙在浩总务处長

장 ▲金鎔貞교육대학장 ▲趙熙



榮景상대학장 ▲嚴琦鍾의료행정
보좌역 ▲김진분부장=空席
◇간사=▲張用喆 건립본부사
무장

「세이스피어……」이사에

金재남 모교 교수

金재남 모교 교수는 최근 英國에서 열린 국제세이스피어학

新任教員 2명 추가임용

南前부총장등 5명 「대우」로

母校당국은 지난 2월 28일자로 정년퇴임한 南都冰(전 경주캠퍼스 부총장) 교수를 대우교수로 임명하는 5명의 대우 교수 및 2명의 신임교수를 인사발령했다.

이번 발령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우교수

△李丙鶴(문화대 국문과·전대학원장) 교수

△南都冰(사법대 국사교육

과·전부총장) 교수

△특별대우교수

△李真實(인문과학대 철학

과) 교수

△金재남(인문과학대 영문

회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다.

지난 30여년 동안 모교 영문과에서 후학양성에 전력해온다. 금교수는 세이스피어 학제의 권위자로 그동안 한국세이스피어학회 회장을 역임하며 학회 발전과 함께 많은 연구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역리학의 대가였던 故

상징탑 건립 모금운동

경주캠퍼스 조감도 등 기초작업 끝내

母校 경주캠퍼스 총학생회 「상징탑 건립 추진위원회」는 상징탑 건립에 따른 본격적 모금운동을 지난 29일부터 전개하고 있다.

모교의 진학이념을 계승하고 동국인의 주체성 및 가치관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同위원회는 명예위원·상임위원·추진위원으로 구성되어 협력·설계도와 조감도·조경사업 등 기초작업을 모두 마무리 했다.

전교생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건립될 이번 상징탑은 청과동과 인조석, 미ILLED색종에서 채택하게 되는데 소요경비는 4천여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집행부측은 「다각적 모금방법과 함께 건립위지 등의 제반사항은 꼭넓은 의견수렴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母校에 도서기증

故 徐京洙 교수 유족등

母校故 徐京洙(인철과) 교수의 미망인 金美英여사가 지난 2월 28일 고려대 강경을 포함한 단행본 9권 35책, 잡지류 3백여권을 주로 불교관계로서 母校 도서관에 기증했다.

한편 역리학의 대가였던 故

金炯秀(인문과학) 孫昌求(자연과학) 임명

경주캠퍼스 편제개편 따라



신임 金人溫과학대학 학장과 孫正元과학대학 학장

▲ 金炯秀 人溫과학대학 학장

32년 영진생, 58년 본교 국문과 교수, 81년 본교 대학원 부한국사학회 회장, 26년 문리대학 학장

역임.

▲ 孫昌求 人溫과학대학 학장

26년 대구生, 48년 경북대 농학과 59년 본교 대학원 농학 석사, 75년 서울캠퍼스 조경과 교수, 86년 경주캠퍼스 사활조경연구소장 역임.

— 알립 — 동문 원고모집

本報에서는 東友會報 创刊 11周年을 맞이하여 本報를 全 朝國人이 참여하는 대화의 광장이 되고자 동문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투고바랍니다.

원고 내용

*隨筆 15枚 내외

*同窓會建立에 대한 나의 의견 15枚 내외

*同窓會發展을 위한 나의 제언 15枚 내외

제출처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회보편집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사무국 편집실로 문의바람. 전화 733-3991~3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事務局

“서울프라자호텔을 불리주십시오”

서울프라자호텔 연회출장 서비스

시작부터 끝까지 저녁에 맡기시고,
손님처럼 즐기십시오.

이제, 가상이나 회사에서의 각종 연회를 처리하고
풀위에게 지르실 수 있습니다.

서울프라자호텔 연회출장 서비스는 소중한
모임을 더욱 만족스럽게 꾸며 드립니다.

작은 모임부터 큰 행사를 이르기까지 각종 모임의
계획과 준비를 처리하게 맡기주십시오.

언제나도 전시하여 주시거나 예약에 맞추어
설정 있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프라자호텔을 불리주십시오.

* 출장 서비스는 베거우로운 분은 원탁한 사설을
갖춘 서비스의 연회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문의: 전화 771-2222, 7245-7249

△서울프라자호텔

생일이면 떠오르는.....



新羅 명과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소비자 상담실 863-4040

대표 이사 홍평우 (70 경영)

세무사 鄭大鎮 (63법학)

稅務 상담 · 기장대리

심사 · 심판 · 청구



전화 856-6182 854-5618

856-4924 853-4635

세무사 정대진사무소

영화와 삶, 모두 레디-고!

영화감독 이미례동문을 찾아

『한마디로 겁이 없었죠. 데뷔할 당시는 그저 좋아하는 일에 매달릴 수 있다는 것에 만 신사령이 나서...』 라며 영

문을 찾아 동국예술이라는 큰 흙안에서 보다 깊은 확신을 꿈꾸는 그의意志를 만나보았습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니 만들어진 작품이 「수렁에서 견진 내 팔」인데 기대 이상으로 좋은 반응을 얻어 기쁜만큼 어깨가 부거워집니다. 그렇게 이론바 「감독」으로서 10여 년간을 지내온 지금으로선 영화분위기에도 익숙해졌고 진지하게 작품을 대할 수 있는心得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영화계라는 특수 무대가 현재 어떠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 그 바람직한 방향성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제까지 우리영화는 지역



회계에 뛰어들던 당시의 상황을 묻는 첫질문에 소년같은 미소를 띠며 얘기를 시작하는 영화감독 이미례(80·연영) 등



영화를 통한 자기 표현으로

東國의 구체적 힘 되고 싶어요.

히 사전적이고 규격화된 느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래까지 감독들의 세대교

체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시도가 많아지고 현대의 관객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시각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된 것이 우선 꼽을 만한 점입니다.

『영화를 통해 후배들의 의도도 앞으로 영화계 발전에 촉진해 역할을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영화관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는?

『평생동안 영화를 하고 싶다는 것이 세월 큰 욕심이지요. 전례를 보면 대개 여성감독들은 한두 작품을 만드는 정도에서 그쳤어요. 따라서 나는 영화를 축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마련이 우선적이고... 모든 예술이 다 그렇긴 하지만 저는 특히 영화를 통해 거창한 주제를 전달하기보다는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서 즉 회노애락을 표현하고 싶어요.』

—이론바 「캐리어 우먼」으로 서의 자신의 위치에 관해서는 어떻게 느끼시지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확실한 정리가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여성으로서의 책임을 느끼는 자리에서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나로서는 여성이라는 것을 점점으

동창회관 建立意志...日新又日新

「合心東國 동창회관 건립」

『요즈음 「동창회관 건립」이라는 크나큰 목표가 현실화 되어가는 꿈에 부풀어서인지 日新又日新하고 있는 분위기로 동창회가 전보다 더욱 친근한 느낌이더니 라며 모처럼 뉴욕에서부터 온 J동문의 흐뭇한 찾마다.

아닌게 아니라 지난 21일 「제49차 정기이사회」에서는 韓人哲學회의 재선임과 더불어 회관건립이라는 대형제를 구체화하고자하는 각계의 성금과 세단안건들이 속출, 보이는 이로 하여금 끝으로 東國愛를 새길 계단에 한 자리가 되기도.

모조록 이러한 성원이 더욱 끊임없이 이어져 東國의 빛이 전세계로 뻗어나갈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本동동동구 삶에 기원합니다.

동문들의 성원에 감사... 지난 3월 21일 본회사무국 현관문에 「사무국의 징기는 내집으로」라는 마음으로 각

계 동문들의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한 축하금이 담지, 새사운 동문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합니다.

母校 李智鎭총장을 비롯한 임직원, 吳綠圓 동국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재단측, 廉圭, 朴俊享 동문동등 본회 회장단 안재란동문동, 동문들



東國大同 동창회 動 움직임

의 이전축하금이 1천여만이나 담지, 컴퓨터를 비롯한 사무실집기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문들이 구입해준 집기만큼 쓸고, 닦

현관식 축하에 그저 감사....

남성복전문점

MINNESOTA
미네소타
MINNESOTA

- 신사복·콤비·Y/셔츠
- 단체복·주문복 일체
- 넥타이·벨트·지갑등 액세서리

전화수분획영
TEL: 275-4564

대표朴順吉(74국문)
서울·중구 을지로 3가
(지하상가 3 - 17호)

신옹·친절·봉사
대한가축원
영진가축원



- 외국 수입견
- 교환사육 상담
- 각종 견구 취급
- 애완견 분양

대표 서영진 (61경계)

중구 충무로 5가 73-2
266-0731 · 267-0195
265-0086

桃園꽃집

화원·꽃바구니
생화·신부화
화분·동·서양란

TEL : 266-4571
야간 : 602-4806

대표 辛承水 (72 경영)

서울·중구 충무로 4가 125-1
진영빌딩 3층 42호

• 금은·보석·시계

三正堂

三正

779-3360

서울·중구 명동지하상가 6호

대표 金基俊 61 경계

【月刊】 第121號

로 활용, 남성감독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석되는 여성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새로운 작품을 주제로 계신다고 들었는데...

『예, 작품의 제목은 「물망초」인데 제목에서 풍기는대로 순수 Love Story적인 내용을 담고있어요. 대학생 부부를 중심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최선의 삶속에서 나타나는 이를 다음들을 연인의 혼란과 정서 고갈 상황에 어필시키고 싶습니다.』

—이 사회에서 영화가 갖는 기능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십시오.

『영화란 대중예술이라는 대전제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자체적인 민족적인 정체성을 사회화하는 변화와 연결시켜 가면서 가장 우리적인 것』을 찾는 작업도 범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에서 느끼는 東國人으로서의 위치는...

『안에 있을 땐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한 적이 많았는데 밖에 나와서 살펴하면서 동문을 갖고있는 것이 참으로 소중함을 느껴요. 또한 제가 연출하는 작품의 성공 여부보다도 내가 간접으로서 일하고 있는 것이 작으나마 東大의 자랑이고 살고 있고 그것이 후배들에게 게도 구체적인 용기를 줄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선배로서 영화계로 나오려는 후배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

『물론 그들중에는 영화에 대한 확신을 갖고 출발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막연히 영화에 대한 꿈만 가지고 나서는 경향은 한두 작품을 만드는 정도에서 그쳤어요. 따라서 나는 영화를 축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마련이 우선적이고... 모든 예술이 다 그렇긴 하지만 저는 특히 영화를 통해 거창한 주제를 전달하기보다는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서 즉 회노애락을 표현하고 싶어요.』

—앞으로 결혼이나 다른 계획은 어떠하신지?

『글쎄 독신주의자는 아닌데 영화만 좋아 죽어버리겠다는 보니... 이번 「물망초」를 끝나면서 축복된 상태로 발전을 위한 내내 기회를 가지면서 결혼도 고려해보려 합니다. 제 삶도, 또한 영화도 윤기있는 작품들이 되기를 원하니까요.』

【堵】

東國人은
東國인이 경영하는
나라항공으로

가장 저렴한 항공요금
(후불도 가능)

나라航空

대표이사 安重五
(65영문)

776-7895 ~ 7

758-4396 ~ 7

상구빌딩 1103호

(조선호텔후문 맞은편)

노스웨스트 오리엔트가 로스앤젤레스로 매일 운항합니다.

아시는분은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를 선택하십시오.



로스앤젤레스로 가실니까? 일주일 중 어느날이라도 노스웨스트 항공편이 있는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를 선택하십시오.

미국 제1의 태평양 횡단 항공사가 드리는 또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는 지난 39년간 한국과 미국간을 계속해서 운항해온 항공사로서 매일 노스웨스트로 향하는 항공편을 비롯하여 씨애틀행 논스톱편을 통해 가장 빠르게 미국으로 모셔드리며 도착즉시 방대한 국내선 연결망을 통해 다른 항공사로 갈아타는 불편 없이 미국의 주요도시로 연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인 여승무원이 친절한 안내와

함께 일등석과 이제큐티브 클래스에서는 세계 정상급의 리갈 임페리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외여행 경험에 많으신 분이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를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가까운 여행사나 노스웨스트 오리엔트로 전화주시시오.

5 10pm	씨애틀 (착 9:50am)
4 30pm	로스앤젤레스 (착 10:05am)
서 1:45pm	시카고 (착 12:15pm)*
12:50pm	뉴욕 (착 3:20pm)
동	샌프란시스코 (착 12:40pm)
경	호놀룰루 (착 8:55am)

* 1986년 4월 운항재개



People who know...go
NORTHWEST ORIENT

“東國大學校 同窓會 入住를 축하합니다”

서울의 심장부 종로 오피스타운에 자신있게 내놓는 애브뉴빌딩!

‘86, ‘88 광광코스로 지정받았습니다.

200여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시설이 완비되었습니다.

어느 곳과도 연결되는 길목에 자리잡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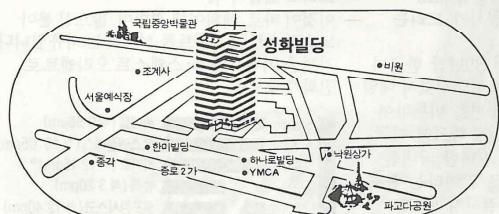
최고의 공간을 최고의 기능으로 조화시켰습니다.

최선의 관리와 최선의 서비스를 갖추었습니다.

새로운 명물거리로 등장한 종로 애브뉴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에서
우리의 전통과 미래를 함께 엮어나갈
종로 애브뉴의 주인이 되실 분들을 찾습니다.
분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 적은 성화빌딩 분양 사무실로 문의해 주십시오.
상세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분양회원 모집중
734-0051-5



成和實業株式會社
大京產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8-18번지

TEL. 734-0051~9
736-7447

대표이사 崔 賴 植 (經院 1期)
전무이사 李 知 映 (68商科·經院 1期)